

“인권도시 전북 함께 만들어요”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 28일까지 모집... 인권침해 모니터링·정책 제안 등 활동

전북도가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북지역 인권전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전라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한다.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은 총 15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들은 지역의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인권교육 및 정책과제 참여 등), 지역사회의 인권옹호자로서 제도 개선사항 제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여하는 임무 등을 통해 인권 관련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도민을 대표로 적극 협조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도의 인권 사고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현안 공유 및 스터디 등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수행하며,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침해·차별 및 불편사항 발굴·개선에 앞장선다.

이 외에도 민주화 운동 등 국내 인권 발전의 역사가 깊은 명소를 돌아보는 인권현장 탐방, 세계인권선언문 알리기 캠페인 등 도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 도민소통 인권공감 인권자료실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동기를 작성해 이메일(worsup0229@korea.kr) 또는 팩스(063-280-2059),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보호팀(063-280-3156)으로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성별, 연령, 업무분야 등에서 다양성을 고려해 1차 지원서 서류심사, 2차 본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고, 6월 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사전교육 이수 후 전북도 도민 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된다.

도 인권강사양성과정 수료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인 인권지킴이, 시·군 인권업무담당자의 경우 선발시 우대할 예정이다.

연경형 인권담당관은 “도민 인권지킴이들은 14개 시·군 도민들을 대표해 인권 활동을 펼치며, 인권이 널리 신장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여러 의견과 도움을 주고 있다”며 “서로 다름이 차별받지 않고 소수가 배척되지 않는, 사람이 먼저인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청소년포상제 활동 지원으로 자기주도 역량 향상

‘청소년 포상제’ 봉사활동·자기개발·신체단련·탐험활동 등 4가지 활동 영역 운영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생활화로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청소년포상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 포상제는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청소년의 자기 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비대면으로 활동을 구성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기 주도 성장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전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 포상제의 전북 광역사무국으로 지역 포상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9년 광역사무국이 설치된 이래 900여 명의 청소년이 포상제 활동을 경험했으며, 올해도 많은 도내 청소년들이 포상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도내 18개의 청소년 유관기관 및 학교에서 청소년 포상제를



지난해 전라북도 지역 청소년포상제 탐험활동 모습.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주 영생고등학교가 청소년 포상제와 교내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며,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청소년들의 포상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도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역량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포상제는 청소년들이 개인의 관심사, 흥미, 목표를 스스로 탐색해 4가지 활동 영역(봉사활동,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만 9세~13세)와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만 14세~24세)로 나누어 참여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도내 7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지역 최대 58만원

전북도가 도내 7개 군지역 임산부의 산전 관리와 분만의료 서비스를 지원 하던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역(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10주 이상부터 분만까지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진찰과 분만이송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 이송비 지원 신청은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분만시 10만원, 산전진찰 1회당 4만원 등 최대 58만원의 교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출산취약지역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임신 16주 이상에서 10주 이상 임산부로 확대했다.

또, 지원 횟수도 9회에서 13회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 등을 수렴해

수혜 혜택을 점차 늘리려는 방침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이용자는 “거주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어 불편함이 있는데, 교통비를 받을 수 있어 부담없이 진찰과 분만을 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전북도는 분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국가공모 사업으로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기존 2개소(고창병원, 진안군의료원)에서 3개소(남원의료원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국 최초 국가·지자체 출연기관 공동공모·수행

도, 2022년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 공모에 농생명 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 촉진 지원 사업 선정

전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 공모사업’에 ‘농생명 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 촉진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추진사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생명 바이오 분야 수입·수출에 필수적인 원료에 대한 가능성 및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에 국비 6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 업체들에게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평가 기관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국 최초로 국가 출연기관과 지자체 출연기관이 함께 사업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구축과 연구도 협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국가 출연기관으로 도내에 소재한 한국식품연구원(KFRI),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이번 사업의 주관기관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배리&바이오식품연구소 등 지자체 출연기관이 참여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공모선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간 협업에 의미가 크다”며 “기존 수·출입 기업체가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가능성 검증에 애로를 겪던 것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수입 원료의 안전·기능성을 파악해 수입대체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뉴시어션 생활 속 거리두기 적극 동참해 주세요”

어선 이용객 증가에 코로나19 예방 위한 이행점검·홍보 강화

전북도가 다중이용시설인 뉴시어션에 대한 뉴시어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점검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에 등록된 뉴시어션은 총 262척(군산 200, 부안 62)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도내 뉴시어션 이용객이 4월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어 뉴시어션의 선실 등 밀집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뉴시협회와 유선 및 카톡방 개설 등 비대면 소통을 통해 뉴시어션 선장을 방역관리자로 지정, 출항 전 뉴시객들에게 방역수칙을 선내 자체 방송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3.29.~5.17.) 및 시·군 코로나19 자체점검(4.6.~해제 시까지) 기간 등을 활용해 뉴시어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점검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

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소가 확인될 경우 선제적인 대체방안을 강구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뉴시어션업자 및 이용객들의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뉴시어션 생활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3~5세 누리과정 담당자 연수 추진

전북도는 도내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담당 및 담당 예정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누리과정 연수’를 실시한다.

누리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교육내용은 ▲교사 주도적 교육에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재정립 ▲일과에서 놀이를 통한 배움 강조 ▲

유아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 자율성 확대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유아기 경험해야 할 5개 영역(신체,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이다.

도는 누리과정 집합연수를 통해 보육교사가 누리과정의 성격과 구성 방향을 이해하고,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는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처럼 도내 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놀이할 수 있도록 건강할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http://jeonbuk.childcare.go.kr>)나 전화(063-276-8080~4)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15회 전국 장애인가요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전국장애인가요제를 실시하오니 장애인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화예술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찬 가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과 지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회 본부장
김양욱



제전위원장
김철환(주)은혜상사 대표

- 참가대상: 전국의 등록 장애인 만16세 이상
- 참가제외: ① 전국대회에서 대상, 1등, 최우수상 ② 상업적인 성격으로 대회만 나오는 자 ③ 주최 측의 참가규정에 따르지 않는 자
- 접수처: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 5층 (사무국) 전화 (063)286-6678, 231-6669
- 기 타: ① 참가비 없음 ② 예선에 불참자는 제외함

◎ 일시: 2021년 5월 8일 (예선 오전10시, 본선 오후 2시 30분)
 ◎ 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 주관: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전라북도등록단체)
 ◎ 후원: 전라북도 (주)은혜상사, 휴네이처, 새빛장애인자립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수정과 한울타리협의회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